



'나랏말싸미'



'엑시트'



'사자'



'비스트'



'진범'

장르와 배우들의 향연 ... 여름 극장가 한국영화 흥행 대전

사극·재난 액션·오컬트·근현대드라마·스릴러 등 장르 다양
조정석 등 충무로 차세대 배우·송강호 등 관록의 배우 총출동

‘장르의 향연’, ‘차세대 배우와 관록의 배우들 간 조화’
올여름 극장가에 출격하는 한국영화 키워드다. 정통 사극부터 재난 액션, 오컬트, 근현대드라마,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삼차림이 꾸며진다.
박서준, 조정석, 임윤아, 류준열 등 충무로 차세대 배우들과 송강호, 박해일, 유해진 등 믿고 보는 관록의 배우들도 총출동한다. 관객 입장에서선 입맛에 맞는 장르와 선호하는 배우들 작품을 골라볼 기회다.

통상 7~8월은 한해 전체 관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천만명이 극장을 찾는 성수기다. 특히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약 3천500만명이 몰린다.

◇ 세중으로 돌아온 송강호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에 살던 기택역의 송강호가 세중대왕이 돼 돌아온다. 다음 달 24일 개봉하는 ‘나랏말싸미’ (감독 조철현)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한글 창제 과정에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송강호는 근엄한 왕의 모습을 넘어 아내를 아끼고, 새 문자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끝없이 힘을 겨루는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인간 세종을 연기했다. 송강호와 함께 박해일, 전미선이 ‘살인의 추억’ (2003) 이후 16년 만에 한 작품을 모였다.

박해일은 유교 조선이 금지한 불교를 받드는 승려로, 문자 창제를 돕는 숨겨진 역할을 맡았다. 전미선은

‘여장부’ 소현왕후 역을 맡아 기존 사극 속 여성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인다.

‘사도’ (2014) ‘평양성’ (2010)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2010) 등 역사물의 각본을 쓰고, ‘님은 먼곳에’ (2008), ‘달마야 서울 가자’ (2004) ‘황산벌’ (2003) 등을 제작한 조철현 감독이 연출했다. 그가 충무로에 발을 들여놓은 지 30년 만에 직접 메가폰을 잡은 늦깎이 데뷔작이다.

◇ 재기발랄한 재난 액션 ‘엑시트’
청년 백수 용남 (조정석)과 대학동아리 후배 의주 (임윤아)가 원인 모를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시를 탈출하는 내용의 재난 액션.

선정적, 자극적, 폭력적 장면과 신파 코드가 없는 ‘4무(無)’ 영화다. 비장미 넘치고 목직한 대다수 재난영화와 달리 액션과 코미디를 재기발랄하게 버무렸고, 청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가족애를 담았다. 주인공들이 독가스를 피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달리는 탈출 과정이 짜릿한 긴장감을 준다. 어떤 연기든 능청스럽게 해내는 조정석과 영화 ‘공조’에서 코믹 연기를 선보인 임윤아의 연기 호흡도 관객 포인트. 이상근 감독의 데뷔작이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고비마다 도심 속 다양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스릴감을 준다”면서 “가족 단위 관람 영화로 안정맞춤”이라고 소개했다. 7월 31일 개봉.

◇ 새로운 시도와 소재, 박서준-안성기의 ‘사자’
2년 전 데뷔작 ‘청년경찰’로 565만명을 불러들인

김주환 감독과 드라마-예능-영화에서 중형무진 활약을 보여준 대세 배우 박서준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

아버지를 잃은 격투기 선수가 구마사제를 만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의 사신과 최후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액션으로, 방의된 귀신에 맞선 구마 의식 등 오컬트적 요소도 강하다.

‘기생충’에서 특별 출연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은 박서준이 격투기 챔피언 용후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연기는 물론 격투기부터 와이어 액션 등 곤란도 액션까지 선보였다. 구마사제 안신부 역을 맡은 안성기와 세대를 뛰어넘는 연기 호흡도 볼거리다.

김주환 감독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빙의 장면 등에서 고전적인 아날로그와 새로운 디지털 방식을 미묘하게 조합해 새로운 것을 그려냈다”면서 “볼거리가 많은 영화로, 일본식 호러와 서구적 호러도 섞여 있어 동서양의 만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슴 뜨거운 역사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죽음의 끝자락으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 전투를 그린 근현대물이다. 특정한 영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했던 민초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무더위마저 녹일 전망이다.

비범한 칼솜씨를 지닌 해철 (유해진), 발 빠른 독립군 장하 (류준열), 날쌔 저격수 병구 (조우진) 등이 그 주인공이다. 전투 액션 영화로서 볼거리도 풍부하다. 독립군이 화력과 숫자 면에서 월등히 앞선 일본군을 낫선 봉오동 지형을 이용해 유인해내는 과정 등이 속삭이듯 전개된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봉오동 전투로 향하는 과정에 담긴 액션과 전투장면이 볼거리”라며 “독립군을 연기한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자의 기억법’ (2016), ‘용의자’ (2013)를 연출한 원신연 감독의 신작. 8월 초 개봉.

◇ ‘비스트’ ‘기방도령’ ‘진범’
범죄 스릴러 ‘비스트’ (감독 이정호)는 여름 초입인 이달 26일 관객을 먼저 만난다. 희대의 살인 사건 범인을 잡기 위해 폭주하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입체적인 캐릭터와 다층적인 스토리, 인간 심리에 대한 세밀한 묘사, 이성민·유재명·전혜진 등이 경쟁하듯 펼치는 연기가 인상적이다.

다음 달 10일 개봉하는 ‘기방도령’ (남대중)은 조선 시대, 폐업 위기에 처한 기방 연풍각을 되살리려 꽃도령 허색 (이준호 분)이 남자 기생이 되어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사극이다.

드라마 ‘자백’ ‘기름진 멜로’ 등에서 활약한 이준호가 허색역을 맡아 능청스러운 매력에 선보일 예정. 영화 ‘아빠는 딸’ 등에 출연한 정소민이 당찬 아씨 ‘해원’을 맡아 첫 사극에 도전한다. ‘극한직업’에서 마약반의 귀여운 막내로 눈도장을 찍은 공명이 양반가 도령으로 합류했다.

송새벽·유선 주연의 ‘진범’ (고정욱)도 7월 10일 관객을 찾아간다. 피해자의 남편 영훈 (송새벽)과 용의자의 아내 다연 (유선)이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서로를 향한 의심을 숨긴 채 그날 밤의 진실을 찾기 위한 공조를 그린 추적 스릴러. 올해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장편’ 섹션에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연합뉴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유튜브 4억뷰 돌파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23일 오전 1시 37분께 유튜브 4억뷰를 넘겼다. 이 노래는 지난 4월 12일 발매한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 타이틀곡이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할시가 피쳐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더했다.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7460만 건을 달성해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비디오’ 등 3개 부문을 인증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이낙연 총리 국회 시정연설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정재영의 파워인터뷰
1	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 스페셜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제보자들(재)	25 빠샤 메카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퍼퓸	05 스트레이트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드라마 특선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스포츠특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큐 오늘
07:30 뽀뽀뽀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08:00 덩동덩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뽀뽀 뽀로로(재)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덩동덩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특이동!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4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 산골기행 1부 구름 위의 산책〉
	21:30 한국기행
	〈여름이면 울주 1부〉
	21:50 EBS 다큐프라임
	〈천국의 새 1부 다리 없는 새〉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48년생 과단성 있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60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72년생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84년생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갑갑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28</p>	<p>午 42년생 만사형통하는 기운이 보인다. 54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66년생 열린 마음으로 처세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78년생 도모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90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적의 상황에 충실하자. 행운의 숫자 : 35, 57</p>
<p>丑 37년생 치밀한 대처 없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49년생 철저히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61년생 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73년생 기초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85년생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40</p>	<p>未 43년생 중차대한 상황을 포착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 55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67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79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91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03</p>
<p>寅 38년생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50년생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62년생 살마가 사람 잡는 법이 니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구체적인 실재적이어야 유용하다. 86년생 동쪽으로 진행 했을 때 능률이 극대화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1, 19</p>	<p>申 44년생 객관적이야하면 어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법이다. 56년생 절대적인 소신을 가져라. 68년생 반드시 준비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80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고 본다. 92년생 필연적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9, 05</p>
<p>卯 39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51년생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리니 처세를 잘 해야겠다. 63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75년생 주저하지 말고 초심의 계획대로 실행하자. 87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행운의 숫자 : 21, 51</p>	<p>酉 45년생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중차대한 일이 보이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 69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말이나리라. 81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사니라. 93년생 전체의 판국을 섭렵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95</p>
<p>辰 40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었다. 52년생 마음을 비워라. 64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76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질 수 있다. 88년생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 30, 09</p>	<p>戌 34년생 잡으로 기가 막히리라. 46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58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70년생 길흉의 상극선이 길게 뻗어 있다. 82년생 어떤 그대로 믿었다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29</p>
<p>巳 41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53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나아가야 맞이하리라. 77년생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곽에 불과하다. 89년생 새로운 것에 행운이 깃들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6, 98</p>	<p>亥 35년생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겠다. 47년생 지금의 판도르라는 무의미하다. 59년생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겠다. 71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83년생 가볍게 여겨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72, 0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